

02

플랫폼·인공지능 시대 사실과 의견의 경계 : 탈경계 뉴스 환경에서 저널리즘 규범의 재구성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명예교수



1. 서론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첫 장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야기가 나온다. 여섯 살 어린아이가 거대한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 제시다. 아이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라고 대답한다. 이는 해석이자 의견이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 아이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다시 그려 보여준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사실 제시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여전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겉모양만 보고 그것을 모자로 해석한다.

이 장면은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을 구분하는 일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그림을 두고 한쪽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인식하고, 다른 쪽은 ‘모자’로 해석한다. 대상은 같지만, 인식은 전혀 다르다.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은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사실을 모자로 재해석한다. 존재에 대한 인식 대신 해석이 개입한 것이다. 그 결과 사실은 의견으로 재구성된다.

저널리즘은 바로 이 두 영역을 구분하려는 제도적 장치 위에서 발전해 왔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근대 저널리즘의 핵심 규범 가운데 하나였다. 같은 대상이라도 사실과 의견은 차원이 서로 다르다. 사실은 검증 가능한 정보인 데 반해, 의견은 해석과 평가의 영역에 속한다. 이 둘은 뉴스 장르의 분리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스트레이트 뉴스는 사실 전달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실과 칼럼은 의견 표현의 장르다. 전통적 신문 체제에서 독자들은 기사 형식만으로도 정보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르적 구분은 단순한 편집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저널리즘의 인식론적 원칙을 반영한다. 사실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의견은 별도의 공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대 언론이 공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뉴스 환경에서는 이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플랫폼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에서는 기사 장르의 구분이 약화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정보가 구분 없이 확산된다. 뉴스 기사 역시 내부적으로 사실과 해석이 결합된 형태로 생산된다.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는 속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면서 사실 확인 과정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기사는 사건의 사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보다 특정 행위자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데 더 비중을 둔다.

전통적으로 뉴스는 사건의 사실을 설명하는 정보 체계다. 그러나 오늘날 뉴스는 다양한 행위자의 발언을 중계하는 담론 체계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뉴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치라기보다 누군가의 발언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뉴스의 이런 변화는 저널리즘의 정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 중심 정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해석과 주장, 평가가 포함된 의견 중심 정보는 빠르게 증가한다. 뉴스 공간에서는 이제 사실과 의견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플랫폼 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더 앞당겼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뚜렷한 구분 없이 함께 유통된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사실보다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사실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의견은 넘쳐난다. 플랫폼은 정보의 진위보다 흥미와 반응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확산시킨다.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면서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AI) 기반 뉴스 역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문장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 정보와 해석적 표현이 같은 언어 구조 속에서 결합된다. 알고리즘은 사실을 검증하는 판단 체계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문장을 조합하는 생성 시스템이다. AI가 생성하는 뉴스 텍스트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의 형식은 객관적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다양한 해석과 담론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저널리즘의 전통적 규범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한가?’, ‘플랫폼과 AI 시대에는 객관주의 대신에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가?’ 이 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뉴스 환경에서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왜 모호해졌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저널리즘 규범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반 뉴스 생산 환경이 사실과 의견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근대 저널리즘이 구축해 온 사실 중심 규범의 의미를 다시 평가한다.

2. 사실과 의견의 가능

저널리즘에서 사실 중심 보도는 근대 언론 제도의 핵심 규범이었다. 뉴스의 사실성 규범은 20세기 초 상업신문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언론학자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 1922)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사회 현실을 직접 경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민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 따라서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지닌다. 언론은 현실을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공적 의사결정을 위한 신뢰 가능한 사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의 객관성(objectivity)은 현대 저널리즘의 중요한 전문적 규범이다. 언론학자 미셸 섯슨(Michael Schudson, 1981)은 객관성 규범을 사실 검증, 균형성, 그리고 기자 의견의 절제로 설명한다.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토대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다. 뉴스는 사실 전달을 담당하고, 의견 표현은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논평 장르에서 이루어진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명제다. 적어도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그렇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인정받아 왔다.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찰스 스콧(C.P. Scott)은 일찍이 “의견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신성하다(the 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라는 말로 사실의 가치를 강조했다. 전통적 저널리즘은 사실을 의견과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을 의견보다 우선적 가치에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 뉴스 환경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이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전통적으로 뉴스는 사실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

어 왔다. 이러한 믿음은 오랫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사실은 기사로 보도(reporting)하고, 의견은 논평(commentary)으로 제시한다는 원칙이다. 신문과 방송의 보도 규범 역시 이 원칙 위에서 형성되었다.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고 논평가는 의견을 제시한다. 뉴스와 논평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존재했다.

그러나 언론학 이론에 따르면 뉴스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뉴스는 선택과 구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언론학자 게이 터크만(Gaye Tuchman, 1978)은 뉴스의 객관성을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로 설명했다. 기자들은 다양한 출처를 인용하거나 상반된 의견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실천한다. 이러한 방식은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전문직적 전략이다. 동시에 그것은 뉴스가 완전히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 현실의 모든 사건을 다 보도할 수 없다. 따라서 뉴스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현실은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체계이지만, 동시에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뉴스는 사실과 의견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뉴스의 해석성과 의견성은 프레임링(framing) 이론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 1974)은 사람들이 사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한 해석 틀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를 언론 연구에 적용한 로버트 엔트만(Robert Entman, 1993)은 뉴스 프레임링을 문제 정의, 원인 규정, 도덕적 평가, 해결책 제시와 같은 일련의 구조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뉴스는 단순한 사실 전달체계가 아니라,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이다. 사실 정보와 해석 요소가 결합하는 이러한 이중 구조는 뉴스에서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구조적으로 모호하게 만든다.

3. 사실과 의견 경계의 모호성

오늘날 새로운 미디어 기술환경은 사실과 의견 경계의 모호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환경의 등장은 정보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소셜미디어는 정보 생산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었고, 생성형 AI는 텍스트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장시켰다. 뉴스 형식의 콘텐츠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다. 유튜버를 포함해 뉴스 생

산자 역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단순한 정보량의 증가가 아니다. 뉴스 속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경계 또한 불명확하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뉴스와 해설, 주장, 개인 의견이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뒤섞여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텍스트 역시 사실 정보와 일반적 설명, 해석적 서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나타난다. 사실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에도 점차 해석과 논평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실 뉴스는 갈수록 의견 뉴스와 유사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오늘날 뉴스가 사실과 의견이 결합된 새로운 서술 형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널리즘은 사실과 해석이 결합된 ‘해석적 사실 서술(interpretive factual narrative)’이 중심을 이루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저널리즘의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미디어 융합, 그리고 정치적 정파성이 심화된 오늘날의 저널리즘 환경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한 규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018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했다. 뉴스 미디어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람들의 구분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그 결과 모든 진술을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이 대부분 또는 전부를 틀렸다. 흥미로운 점은 조사에 사용된 문장들이 모두 정치적 의미를 지닌 진술이었다.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유리한 진술일수록 그것을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했다. 판단 과정에서 자기중심적 확증편향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4. 사실과 의견 구분에 대한 철학적 논의

사실 진술과 의견 진술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사실과 의견은 다르다. 철학적 인식론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진리 판단의 가능성에서 찾는다. 사실 진술(factual statement)은 경험적 증거와 관찰, 검증을 통해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반면에 의견(opinion)은 가치 판단과 해석, 평가가 포함된 진술로 반드시 참과 거짓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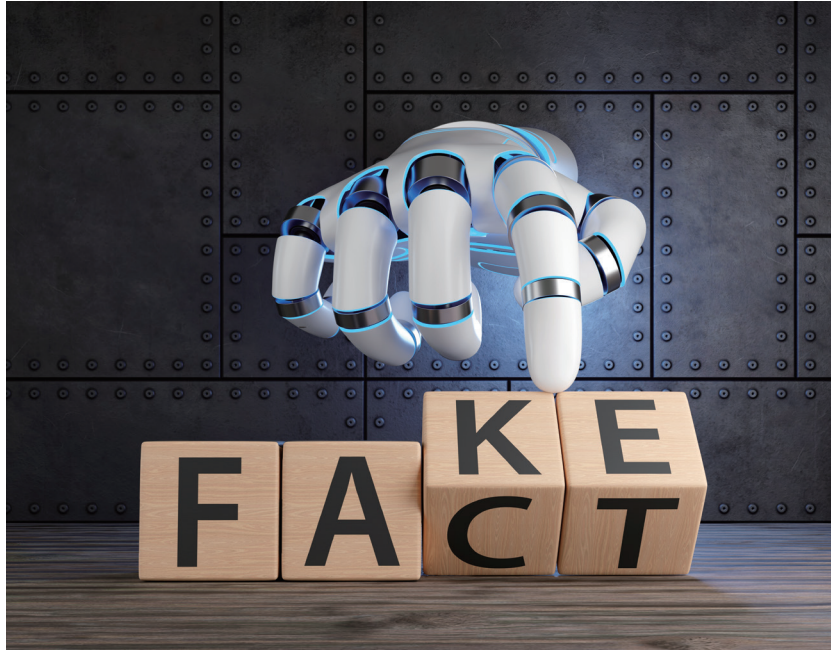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에 2.1%였다”라는 주장은 사실

진술이다. 이 진술은 통계 자료를 통해 참과 거짓의 판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매우 건강하다”라는 말은 평가적 의견 진술에 속한다. 이 진술은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이처럼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의 차이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 개념은 이러한 구분에 이론적 단서를 제공한다. 반증 가능성이 있는 진술은 사실 진술에 가깝고, 반증 불가능한 가치 판단은 의견에 가깝다.

사실은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현실 속에서 존재한다. 사실은 대체로 참일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참일 수는 없다. 예컨대 ‘거짓 사실’이나 ‘대안적 사실’이라도 공적으로 유포되면 그것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하나의 ‘현존하는 사실’이 된다. 의견 역시 마찬가지다. 참에 근거한 의견도 있고, 거짓 사실에 근거한 의견도 존재한다. 이처럼 사실과 의견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사실의 공표가 자유로운 것처럼 의견의 표현 역시 자유로운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두 개념의 차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과 의견은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연적 범주라기보다 일종의 개념적 구분에 가깝다. 과학철학에서 말하는 자연종(natural kinds)과 유사하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실과 의견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제시한 사례를 분류하는 일도 비교적 쉽게 수행한다. 그러나 두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진술로 이해된다. 사실은 참과 거짓의 판별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반면에 의견은 작성자의 감정, 태도, 가치 판단이 포함된다(Hutchins & Kelley, 2023). 의견은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영역으로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보다 개인의 관찰과 해석을 반영한다. 사실은 증명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개인적 믿음에 근거한 의견은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되기 어렵다. 누구나 특정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사실처럼 증명하거나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 의견은 참이나 거짓의 판정 대상이라기보다 믿음과 태도, 판단을 표현하는 행위다. 그러나 의견은 때로 거짓을 사실처럼 제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에 대한 이러한 대립적 평가는 여러 오해를 내포한다. 먼저 사실과 의견을 완전히 다른 범주로 설정하는 문제다(Lammer-Heindel, 2016). 이는 일종의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에 가깝다.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세계의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의 상태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반면 의견은 정신적 현상이며 개인의 마음속에 형성된 믿음이다. 사실은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의견은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Hutchins & Kelley, 2023).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진술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명제다. 어떤 진술이 사실 진술인지 여부는 그것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진술의 성격에 관한 판단일 뿐, 사실 자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국가를 공습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한 정치적 거래설과 같은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장 역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이를 주장하거나 의견으로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견 진술을 사실로 수용할지 여부는 결국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의견의 사실화(the factualization of opinion)’는 바로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더라도, 특정 정치인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행위적 사실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발언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인식론적 측면에서 '사실'이 된다. 의견은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문제다. 많은 의견이 윤리적, 정치적, 미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모든 의견이 가치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자.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은 참이나 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의견'에 해당된다. 신의 존재는 경험적 방법으로는 그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참과 거짓의 판단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신의 실존 여부는 현재의 인간 인식 체계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 다른 논점은 사실이 증명 가능한 반면에,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해석 역시 지나치게 단순하다. 공적 토론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의학적 사례를 가정해 보자. 의사가 특정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했을 때 환자는 종종 다른 의사에게 ‘다른 의견(second opinion)’을 구한다. 두 번째 의사의 판단 역시 의학적 사실과 전문 지식에 근거한다. 두 전문가가 서로 다른 진단을 제시하더라도 환자는 두 의견을 모두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두 의견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즉시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의견은 경험적 사실과 전문 지식,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실증적 사실을 제시하거나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 따라서 의견 역시 일정한 증거와 논증의 과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그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설명하는 진술은 인간의 인식·언어·관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현존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표현은 사실에 기반한 의견 진술에 가깝다. 여기에는 “크게”라는 평가 기준과 해석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실을 기술하는 과

정에서도 선택, 범주화, 강조의 방식이 개입하며 일정한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

사실 진술조차 관찰자의 인식 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과학철학에서는 이를 ‘관찰의 이론 의존성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이라고 부른다. 관찰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찰자의 인식 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해석의 과정이다.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 1962)은 과학적 관찰조차 연구자의 이론적 틀과 패러다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현상도 어떤 개념 체계와 설명 틀로 관찰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된다. 사실 진술 역시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실 진술은 또한 언어적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현실 세계의 사건은 대체로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를 언어로 요약하고 범주화하여 표현한다. 기자들이 뉴스를 작성할 때 수행하는 언어적 구성 과정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무엇을 사실로 선택할 것인지, 어떤 맥락 속에서 설명할 것인지,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한다. 예를 들어 경제 보도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과 “경기가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표현은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독자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달라진다.

저널리즘에서의 사실 구성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뉴스의 사실성(facticity)은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결과라기보다 일정한 사회적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언론학자 테크만은 뉴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조직의 규범과 절차 속에서 구성된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기자는 어떤 사건을 뉴스로 선택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인용할 것인지, 어떤 맥락을 강조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선택 과정은 사실 진술 속에도 일정한 해석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저널리즘에서 사실과 의견

사실과 의견은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분리된 범주가 아니었다. 오늘날 저널리즘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당연한 규범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이러한 원칙은 비교적 후대에 형성되었다. 19세기 초기 신문은 강한 정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신문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을 지지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매체였다. 사실 기사와 논평의 구분도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다. 사실 보도와 정치적 주장, 논평이 같은 지면에서 함께 제시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이 시기 신문의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확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핵심 규범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초 신문 산업이 상업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신문은 특정 정치 세력의 기관지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객관주의적 저널리즘이 중요한 직업 규범으로 등장했다. 뉴스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고, 논평과 의견은 별도의 장르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후 저널리즘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오랜 직업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로 사실성과 객관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러나 뉴스 생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사실과 의견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기자는 사건을 선택하고, 어떤 사건이 중요한지 판단하며, 어떤 맥락에서 설명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뉴스는 일정한 해석과 주관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언론학자 허버트 갠스(Herbert J. Gans, 2004)는 뉴스를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결과물로 설명한다. 뉴스로 보도되는 정보는 여러 단계의 선택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해석과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의 객관성 역시 완벽한 사실 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터크만이 제시한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는 기자가 자신의 주관적 개입이나 해석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규범적 장치에 가깝다. 기자의 주관적 의견을 제3자의 말을 인용해 객관적으로 포장하는 식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사실 정보’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회 문제는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시민이 인식하는 현실의 상당 부분이 언론의 재해석을 통해 형성된다. 언론 보도 과정에 사실의 전달 못지않게 의견이나 해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미국 언론 사상가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은 이를 ‘머릿속의 그림(pictures in our heads)’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Arnold-Forster, 2023 참조). 사람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해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 틀을 형성한다. 따라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사회 현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기자는 단순한 사실 기록자라기보다 인식 틀을 제공하는 해석자에 더 가깝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뉴스가 될지는 궁극적으로 기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기자는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관련 맥락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나 해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언론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의제설정(agenda setting) 이론 역시 언론이 시민들에게 사회 현실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제설정 이론의 창시자인 맥스웰 맥콤스(McCombs & Reynolds, 2009)에 따르면 언론은 특정한 사회 문제를, 특정한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문제를 중요한 공적 이슈로 평가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뉴스 작동 과정은 단순한 사실 전달 효과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 의견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현실을 해석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6. 플랫폼·AI 저널리즘 환경에서 사실과 의견

오늘날 뉴스 환경의 변화는 사실과 의견 구분이라는 전통적 저널리즘 규범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뉴스 생산의 장벽을 크게 낮추었지만, 동시에 저널리즘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약화시켰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강한 주장이나 감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노출한다. 그 결과 사회적 공론장은 점차 사실 중심이 아닌, 의견 중심 콘텐츠에

의해 잠식된다. 사실 중심 보도보다 해석과 논평이 결합된 의견 중심 콘텐츠가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된다.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는 속보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사는 늘 다른 매체보다 먼저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기사 생산 시간은 크게 단축되었고, 사건의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대신 특정 행위자의 발언을 인용하거나 전달하는 ‘said 저널리즘’이 지배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 랜스 베넷(Lance Bennett, 1990)은 이러한 현상을 ‘인덱싱(indexing)’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인덱싱 이론에 따르면 뉴스는 사건 자체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거나 분석하기보다, 정치 행위자들의 발언 범위 안에서 내용을 구성한다. 그 결과 사실 검증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다양한 주장과 발언을 전달하는 기능은 반대로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 생산 구조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뉴스는 사건을 설명하는 정보 체계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는 다양한 행위자의 발언을 전달하는 담론 체계로 변화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추천한다. 플랫폼의 이런 구조적 특징은 의견 중심 콘텐츠의 확산을 촉진한다. 그 결과 사실 중심 뉴스보다 해석과 논평이 결합된 의견이나 주장 콘텐츠가 더 널리 확산된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 역시 사실과 주장의 경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뒤 확률적 방식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 정보, 일반적 설명, 해석적 서술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순수한 사실 정보라기보다 사실과 설명, 해석이 결합된 복합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AI 기반 정보 환경에서는 사실의 단순 전달보다 정보의 재구성 and 재조합이 강화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사실 정보이고 어떤 부분이 해석이나 의견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7. 결론

기자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자는 시민을 대신해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해설자이자, 공론장의 분위기와 방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논평가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적 저널리즘(interpretive journalism)과 팩트체크 저널리즘(fact-checking journalism)은 기존



저널리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Birks, 2021).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실적 주장들이 논증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용이 적절 한지, 그리고 어떤 숨겨진 전제가 존재하는지를 드러내 보인다. 이른바 ‘탈 진실(post-truth)’ 정치의 시대에 ‘의견 저널리즘’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저널리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복잡한 현실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 사상가 리프만 역시 복잡한 정치 현실의 진실을 대중이 스스로 파악하도록 맡겨 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신 언론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토론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널리즘 역사 초기만 해도 객관성 규범은 분명한 기능을 수행했다. 그것은 기자 집단 내부의 직업적 결속을 강화하고, 편집자를 통한 조직적 통제를 유지하며, 다른 사회 집단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장치였다.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언론사 내부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와 확인 절차라는 전문

적 관행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검증되지 않은 의견 표명을 하는 다른 집단과 저널리즘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했다. 사실을 의견과 구분하려는 원칙 역시 이러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자리 잡았다.

객관성 규범의 핵심은 과학적 진리를 직접 탐구하거나 특정 의견을 주장하는 데 놓여 있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공정성(impartiality)’이라는 규범이 자리했다. 공정성은 사실에 토대를 두고 불편부당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견이나 주장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이상과 긴장을 형성한다. 사실 중심 보도를 강조해 온 전통적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의견의 개입을 경계해 온 이유도 이와 같은 규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미디어 생태계는 크게 변화했다. 플랫폼 중심의 정보 환경에서는 전통적 게이트키퍼 절차가 약화되었고, 사실과 의견 사이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노출시키며, 정치적 양극화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흔들린다. 하지만 언론 불신을 단순히 기자의 주관적 해석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많은 뉴스 수용자들은 해석이나 의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객관적 진리’라는 주장에 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언론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결국 의견이나 주장 이전에 보도 사실 그 자체를 의심해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음모론과 허위 신념의 확산 역시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전제해 온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변화만 놓고 보면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강조해 온 전통적 논의가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정보 생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사실 검증의 가치는 더 중요하다.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무엇이 사실인지 설명하려는 노력, 무엇이 해석인지 구분하려는 노력, 그리고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적 토론은 사실 기반 정보 위에서만 성립한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의견은 최소한 사실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바뀔 수 없다.

플랫폼과 인공지능 시대에도 저널리즘의 '사실 중심주의'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원칙이다.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저널리즘이 포기할 수 없는 공적 책임에 속한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는 고정된 규칙이라기보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규범에 가깝다. 그럼에도 두 영역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으로 남는다. 오늘날 공론장의 문제는 『어린왕자』 첫 장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여전히 모자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본다. 결국 저널리즘의 미래는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수많은 주장과 의견이 넘쳐나는 시대에도 무엇이 사실인가를 끝까지 묻는 일이다. 📖


 참고 문헌

- Arnold-Förster, T. (2023). Walter Lippmann and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ism*, 40(1), 51–79.
-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7.
- Birks, J. (2021). Evolving journalism norms: Objective, interpretive and fact-checking journalism.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political journalism* (pp. 62–71). Routledge.
- Hutchins, D., & Kelley, D. (2023). Fact and opinion, *Informal Logic*, 43(3), 352–368.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McQuail's reader in mass communication theory*, 390, 397.
- Gans, H. J. (2004).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Kuhn, T. S. 1962/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2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Lammer-Heindel, C. (2016). Facts and opinions, *Phylosophy Now*, 23–25.
- Lippmann, W. (1922). The world outside and the pictures in our heads. *Public opinion*.
- McCombs, M., & Reynolds, A. (2009). How the news shapes our civic agenda. In *Media effects* (pp. 17–32). Routledge.
- Schudson, M. (1981).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Basic books.
- Tuchman, G. (1978). The news net, *Social Research*, 253–276.